

“호텔·백화점 입점 역세권 개발로 ‘수도권 역류’ 막아야”

‘호남고속철도 개통 광주·전남 지역 대응 방안’ 토론회

송정역 1시간 거리 시·군 문화관광 협력 네트워크 구축해야 KTX 연계 교통망, 中·日 항공노선, 무안공항 활성화 시급

박주선 의원·광주발전연구원 주관

호남고속철도(KTX) 개통 이후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해 지방 의료와 쇼핑 수요자들이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는 이른바 ‘역류(빨대)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관련기사 12면>

특히 역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광주·전남 주요 관광지 연계 교통망 확충, 지방도시 축제와 KTX연계 상품 개발, 중국·일본 정기 항공노선 유치, 무안공항 활성화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5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광주·전남 지역의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호남선 KTX 개통에 따른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했으며 박주선 국회의원과 광주발전연구원이 함께 주관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영중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위원은 “부산의 경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이동이 감소했고 컨벤션 매출 이익 및 업무 통행량, 소매업체 창업이 증가했다. 따라서 ‘빨대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권 의원은 “KTX역을 중심으로 지역 간 교통 허브뿐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역세권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에서는 고속철도 역세권이 지역의 관문이자 랜드마크로, 일본이나 프랑스는 고속철도역에 고급 호텔이나 백화점, 식당 등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송정역에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비즈니스 기능을 유치하고 이들의 클러스터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정현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주와 전남이 광역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화관광 분야에서 상생발전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의원은 “수도권으로의 역류현상이나 지자체 간 관광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며 “게다가 광주가

독자적인 관광개발을 추진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민간기업 투자유치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광주·전남의 공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한류스타를 활용한 국내외 공동 프로모션 전개, 광주·전남 관광코스 공동개발, 중국·일본 정기노선 유치, 무안공항 활성화 등의 과제에 대한 협력사업 전개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철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위원은 “개통 초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빨대 효과 우려는 여전하다”라고 주장했다.

조남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위원은 “고속철도 개통이 정착역 도시 모두를 성장시킨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백화점 쇠퇴 등 프랑스의 사례를 들며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더 혜택을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호남 발전을 끌어내려면 광주송정역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목포, 나주, 무안, 화순 등과 협력해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인접 지방도시 축제와 KTX 연계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위원 역시 고속철도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광주송정역과 전남 주요도시 간 연계 철도나 버스 등 교통체계를 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박주선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지역 경제는 물론 사회·문화·관광도시공간구조·교통체계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호남광역경제권의 중추거점지역으로 위상을 가지면서 서남권 첨단 산업, 문화·관광·예술 대표 선도 지역으로 역할을 해 나아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교류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기반을 확립하여 글로벌 도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U대회 유니폼 공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 100일을 맞아 25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모델들이 광주U대회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이날 심판, 조직위 직원, 자원봉사자, 수송요원, 시상도우미 등이 착용할 스포츠 의류와 정장 의류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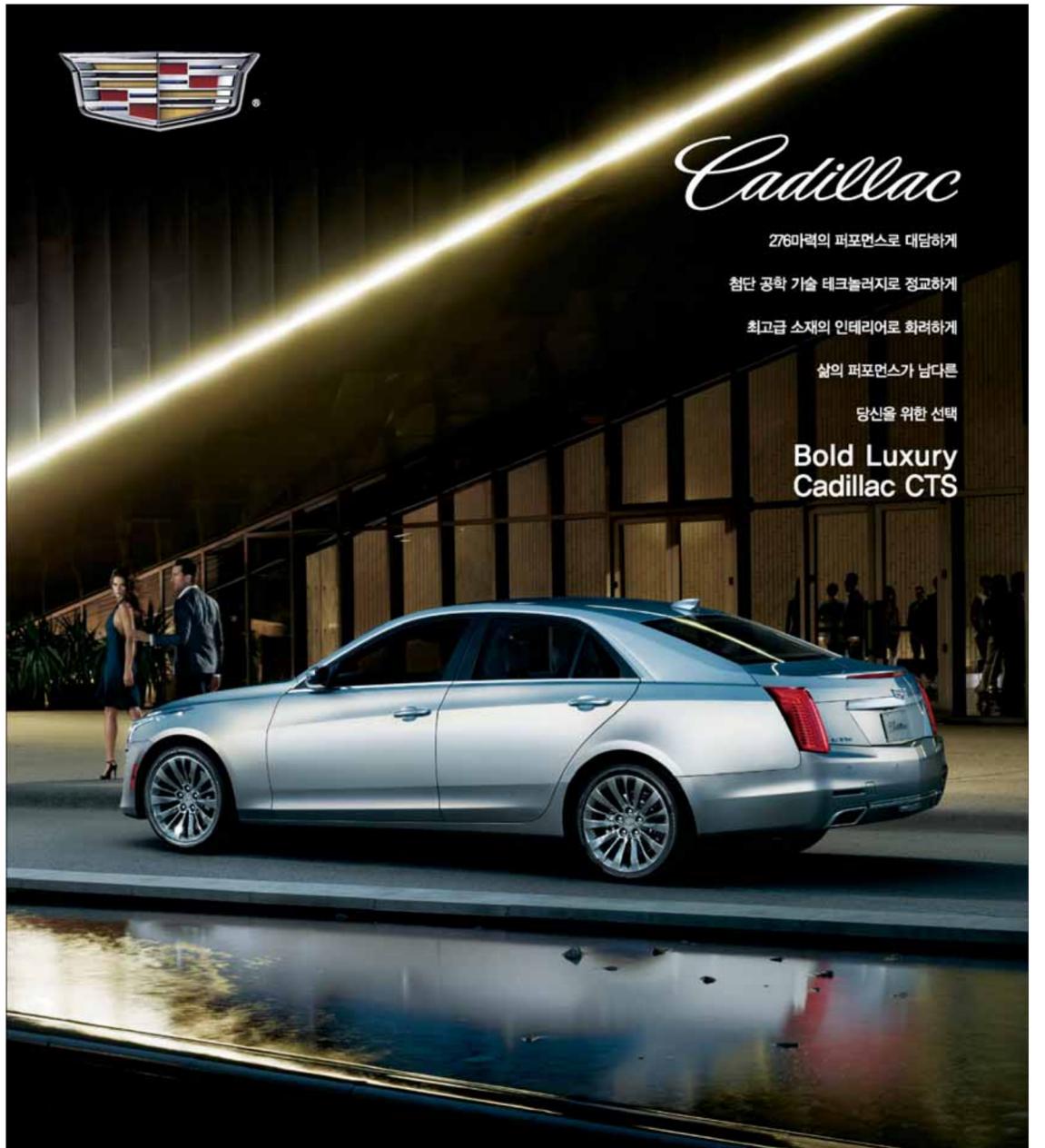
광주시의회 “KTX 변압기 폭발사고 원인규명·안전대책 세우라”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최근 대형 KTX열차의 변압기 폭발사고(광주일보 25일자 2면)와 관련해 광주시의회가 원인규명과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민중)는 25일 “세월호 침몰사고부터 최근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까지 안전 불감증에서 기인한 사고가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KTX는 시

속 300km의 최첨단 고속열차로 조그마한 결함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건위는 “시험운행 중 일어난 사고는 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원인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규명 전까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호남선KTX개통 및 운행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BOLD LUXURY 캐딜락
광주 전시장 Grand Open
Open 기념 특별 금융 프로그램 실시

*자세한 사항은 전시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캐딜락 광주 전시장: 서구 죽봉대로 37 유성빌딩 1층 | 062-363-4434 홈페이지 http://jwm.cadillac.co.kr/main/index.php

*캐딜락 CTS(4WD) 배기량 1900cc, 공차 중량 1725kg, 자동 6단, 회전 반경 10.0km/4 (도심 8.5km/2, 고속도로 12.5km/2) 4등급, CO2배출량 177g/km • 캐딜락 CTS(AWD) 배기량 1900cc, 공차 중량 1795kg, 자동 6단(4단변속기) 8.8km/2 (도심 8.3km/2, 고속도로 11.9km/2) 4등급 CO2배출량 185g/km ※ 위 연비는 표준연비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자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흙 묻은 호미 내던지고 꽃 마중 가고 싶은 걸까?



(108) 봄 날

“나 찾다가/뒤통에/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섬진강 봄물을 따라/매화
꽃 보러 간 줄 알더라”<김용택 작 ‘봄날’>

봄날 나물 캐기 좋아하는 친구 따라 양동 시장 철물전에 나물 갈 사러갔다가 덩달아 토종 호미까지 한 자루 샀다. 호미를 사고 보니 “고개를 살짝 비튼 것 같은 유려한 선과 팔과 손아귀의 힘을 낭비 없이 날 끝으로 모으는 기능”에 감탄했던 박완서 작가의 산문 ‘호미예찬’이 떠오른다. 농촌의 풍물과 함께 여성적이면서도 야무진 호미가 등장하는 옛 그림도 생각난다.

청고 윤용(1708~1740)의 ‘나물바구니를 끼고 봄을 캐는 여인’은 망태기를 멘 여인이 자루가 긴 호미를 든 채 허공을 응시하며 뒤돌아서 있는 그림이다. 머리에는 넉넉하게 수건을 쓰고 동여뒀으며 작은 키, 다부진 몸매, 속바지 아래로 드러난 건강미 넘치는 종아리와 짙은 자립은 일하는 농촌 아낙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여인이 바라보는 텅 빈 들녘에서는 그림 곁에 따로 떨어진 화제사처럼 ‘푸듯한 봄의 무한한 공간감’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동시에 뒷모습 일 뿐인 여인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몹시 궁금해진다.

청고는 공재 윤두서의 손자로 아버지 윤덕희와 함께 할아버지 화풍을 이어받으면서 3대에 걸친 선비화가 집안의 명성을 이뤘다. 33세로



윤용 작 ‘나물바구니를 끼고’

요절한 탓에 많지 않은 유작 가운데 속화로는 이 작품 한 점을 남겼다

미술사학자 이태호교수(명지대)는 저서 ‘조선 후기 회화의 사실정신’에서 “화면 오른쪽 여인의 어깨 높이에 써넣은 ‘군원(君院)’이라는 청고의 ‘자(子)’는 진한 먹의 굵고 날카로운 서체가 마치 이 여인이 흰 호미로 땅을 팍팍 긁어 놓은 것 같다”고 읽으면서 “화면의 근경에 뒷모습의 사람을 등장시키는 방식은 보는 이를 그림 속에 끌어들이는 수법으로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에 계승된다”고 설명한다.

그림 속 여인을 보노라면, 흙 묻은 호미 내던지고 꽃 마중 나선 시인과는 반대로 하던 일 모두 덮고 시골 밭두렁으로 달려가고만 싶어진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